

시편 1편의 הגה와 לנבּ의 번역 문제

김이곤 교수

(한신대학교 구약학)

1. 들어가는 말

「개역」성서의 시편 번역이 지닌 장점과 매력은 이 「개역」의 시편이 그 어느 다른 한국어 번역들보다 시편 시(詩)의 운율(韻律)이 지닌 특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 있다. 운(韻)과 박자(拍子)를 맞추기 위하여 시(詩)의 문법적 구조와 그 문맥상의 의미까지도 희생하는 경우는 오히려 히브리 시(詩)의 고유한 현실이다. 이와 함께, 시편의 히브리 시(詩)는 그 평행법적 특성에서는 더욱 돋보인다. 그러나, 그 평행법적 특성조차도, 로버트·로우드(Robert Lowth : *De Sacra Poesi Hebraeorum*, 1753)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른바 시행(詩行)의 마디(Stich)와 마디 사이에 일어나는 “의미(意味) 평행”(parallelismus membrorum)에 대한 세밀한 탐구가 마침내는 오히려 그 자체의 불완전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처럼, 시의 평행법은 그 의미(意味)의 평행운동(“그네의 진동[振動]”)만으로는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즉 히브리 시의 평행법적 특성은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약·약·강·[강] 형식의 박자”(기본 박자는 4박자)의 존재와 그것의 시적(詩的) 기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 연구가 더욱 심화되었다. 비록 “악센트가 없는 음절들”(unaccented syllables)의 박자 계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다고는 하더라도, 시행(詩行)의 마디들 사이에 일어나는 “의미 평행[진동]”, “운(韻)” 그리고 “박자(拍子)”는 시편 시의 제의적(祭儀的)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가능한대로 모두”(!!) 번역에 반영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시편 시 번역의 최선일 것이라는 판단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시편 시들로부터 현대시의 서정적(抒情的) 분위기보다는 운(韻)과 박자(拍子)를 고려한 의전(儀典)의 낭송적(朗誦的) 분위기를 더 선호(選好)하는 것도 시편 시가 한국 교회에서도 주로 “예배의 전적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특히, 신구교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의 시편 번역에 대한 국내 예배의전(禮拜儀典) 연구자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시편 시의 새 번역들(신구교 「공동번역」, 「표준새번역」)이 가진 그 탈운율적(脫韻律的) 분위기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응들은 부분적으로나마 그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역」본이 지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역」 성서가 지닌 문제점은 축자적 번역이 가져오는 언어의 경직성(硬直性)과 그 어색한 경어(敬語) 표현들에서 나타난다. 그럼에도 감수 위원들의 “마음의 움직임”은 개정자 또는 감수자로서의 전문가적 의식과 교회 현실에 대한 신앙 지도자로서의 목회자적 의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마침내, “성령의 이끄심”은 <결정적인 오역(誤譯)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한국 교회에 확고히 정착되어 있어서 그 개정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표현은 「개역」본 그대로를 견지하고, 동시에 “의미평행/운(韻)/박자(拍子)”를 고려한 「개역」(改譯)의 긍정적 성향(性向)은 최대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개역」본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검토하는 감수작업>으로 감수 위원들을 인도하시었던 것이다. 비로소 우리는 펜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2. 시편 「개역」의 개정판에서 문제된 것들

(1)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성서의 문자들(번역된 문자들을 포함)에 대한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경외심(敬畏心)에도 불구하고, 개정 않고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결정적인 문제점들은 시편 표제(제목)들 안에 나타나는 “영장으로”(伶長으로)라는 표현에서부터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히브리말의 “람나체앗하”(למנצח)를 번역한 말로서 시편 표제의 쉰 다섯(55) 곳에서 사용되어 온 말이다. 물론, 이 말의 의미(msh의 Pi‘el 형태 “탁월하다”, “인도하다”, “지휘하다”)에 대한 연구는 만족할 만한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특히, 희랍어 역본(LXX)이 이해한 “에이스·토·텔로스”(εις τὸ τέλος), 즉 “영원히”(“종말 때까지”)라는 번역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명하기가 어려워(“네찰하”<영원>에서 추론??) 시편 표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오히려 더욱 혼란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 두 가지의 번역 가능성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그 하나는 “지휘자를 따라”(For the director of music / For the choirmaster)이고 그 다른 하나는 “탁월한 자로부터(왕?으로부터) [온]”(From him who excels)이다. 그러나, “탁월한 자로부터 [온]”이라는 의미는 “람나체앗하”라는 표제를 갖고 있는 모든 시(詩)들을 다윗이나 기타 다른 “왕들의 작품”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시편 시의 예배적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 표제를 “지휘자를 따라”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시편 주석들이 이 견해를 따른다는 것도 이 개정을 지원해 주었다. 물론 「개역」의 “영장(伶長)으로”라는 말도 또한 <성전에서 봉사한 남녀 가수(歌手)와 악사(樂士)로 구성된 성전 음악인들의 대장>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어휘는 반세기 세월 동안 한국 교회 보수 신앙의 지원을 받으며 시편 시 표제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어휘는 여전히 결코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늘 신비 속에 쌓여 있었다. 더욱이, 이 말은 한국어 사전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송장[屍身]의 경상도 방언인 “영장”, 관청에서 발부하는 명령서로서의 “영장”(令狀), 안장(安葬)을 의미하는 “영장”(永葬), 영웅(英勇)한 장수로서의 “영장”(英將), 만물의 우두머리로서의 “영장”(靈長) 등등의 말과의 “동음이의”(同音異義)의 혼란만을 야기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지휘자를 따라”라는 말로 개정하였다.

시편 시의 표제의 경우에는 이 “영장으로”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더 이상 개정할 만한 표제 언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현악에 맞추”와 “관악에 맞추”라는 표현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그 의미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개역」의 것 그대로(히브리 발음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대로) 두기로 하였다. 예컨대, 믹담(헌정 형식의 경구?)이나 마스길(교훈?)과 같은 경우도 그 음악적 또는 제의적(祭儀) 기능을 알 길이 없어서 “번역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경우 등이 그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스미닛”(시 6, 12)의 경우는, 그 히브리 말의 뜻(“여덟 째”)이 분명하고, 또 희랍역본(LXX)과 라틴어 역본(Vulgata)

의 견해와 역대상 15장 21절의 견해(“낮은 옥타브”)로 미루어 볼 때도, 그것은 현악기의 “여덟째 현에 맞추어 노래부르라”는 지시로서 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아서, 우리는 이 표제를 “여덟 째 줄에 맞춘”이라는 말로 풀어 놓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셀라”(쉽표? 간주? 반복하라는 지시?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라는 지시? 유니송 또는 합창에 대한 지시?)의 의미도 일반화시킬 만한 번역을 찾을 수 없어서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2) 우리 개정 감수자들의 작업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분명, 그 언어가 명백한 오역(誤譯)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오역이 또한 상당한 사상(思想)의 와전(訛傳)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가 그 동안 너무나 오래 우리 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확고하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지 않고 본문 속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일, 그래서 그 대신 “난외 각주”(欄外 脚註)에서 그 본래적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서 개정 문제를 처리하는 그 일이었다.

이 글의 중심 주제를 “시편 1편의 חֲשִׁיבֵנִי의 번역 문제”로 설정한 것도 바로 이 난제(難題)로부터 온 충격의 한 결과라고 하겠다. 시편 1편 2절의 “그[의] 율법을 [그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의 각주(*)가 보여 주듯이, 히브리어 חֲשִׁיבֵנִי는 지금까지 “묵상하는도다”라고 번역되어 왔고 그리고 이 번역은 교회 현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확고히 정착되었다. 동시에, 시편은 — 시편 서두에 나온 시편 1편의 그 간관적 성격 때문에 더욱 시편은 — 묵상(默想)의 책으로서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깊이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חֲשִׁיבֵנִי(hgh, “하가”)는, 그리하여,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 또는 기도하는” 묵상(默想 / 冥想 ; meditation)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경건에서부터 소리를 내지 않는 상념(想念)행위, 즉 묵상, 명상, 묵도, 묵념, 심지어는 무아정적(無我靜寂)의 선(禪)행위 같은 것을 도출(挑出)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חֲשִׁיבֵנִי는 “의성법적(擬聲法的) 기능을 하는 것”(onomatopoeic)으로서 묵상(명상)행위보다는 오히려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술렁거리다”라는 의미(mutter)를 갖고 있는 말이다.

חֲשִׁיבֵנִי(hgh, muttering)의 의성법적(onomatopoeic) 기능은 구약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입증되었다. 즉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 것”(חֲשִׁיבֵנִי וְחֲשִׁיבֵנִי, 사 38:14),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것”(חֲשִׁיבֵנִי וְחֲשִׁיבֵנִי, 사 31:4), “[사람이] 슬피하며 신음하는 소리”(사 16:7 ; 렘 48:31), “[사람이] 마음을 들어

놓는 것”(사 33:18), “[사람이] 혀로 독을 쏟아 내는 것”(사 59:3), “[사람이]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 말하는 것 / (음모를) 꾸미는 것”(시 1:2 ; 2:1 ; 35:28 ; 27:30 ; 38:12[13] ; 63:6[7] ; 71:24 ; 77:12[13] ; 115:7 ; 143:5) 등등이 הגה라는 말로서 표현되었다. 분명해진 것은 이 언어는, 논의의 여지없이, 무아정적(無我靜寂)의 묵념, 묵상, 묵도, 참선(參禪)행위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증을 뒷받침해 주는 몇 구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a) 우선은, 흔히, 묵언(默言)의 개념과는 서로 구별, 상반(相反)되는 듯한 개념으로 보이는 “רגש(rgš)”(소동, 소란, 걱정, 동요, 격동, 폭동, 집합 등등)와의 동의 평행 관계(synonymous paralleling)에서, (b) 그리고 그 다음은 묵언(默言), 묵상(默想) 개념과 자주 통일 개념으로 간주되어 온, “שיח(syh)”(깊이 생각하다, 불평[탄식]하다, 말하다, 연구하다, 묵상하다)라는 말과의 동의 평행 관계에서 관찰해 볼 수 있다.

(a) רגש(rgš)와의 관련에서 본다면, 시편 2편 1절을 그 예증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למה רגשו גוים // ולאמים יהגורו ריק :

어찌하여 / 이방 나라들이 / 분노하며(רגשו)

민족들이 / 헛된 일을 / 꾸미는가(הגה) (3+3)

브릭스(C.A. Briggs)와 다후드(M. Dahood)가 적절히 논증해 주었듯이, רגש는 격동과 동요의 행위보다는 회합에 모이는 행위, 즉 모반과 반역을 도모하려고 술렁거리며 모여드는 집합 때의 “웅성거리는 소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הגה는 이러한 소음 소리와 동의적 평행을 이루는 말이다. 시편 2편 1절의 하반부에서는 이러한 “헛된 일”을 꾸미는 행위의 의성어(擬聲語)가 동의 평행어(synonym)로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래적 의미를 살려 시편 2편 1절을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어찌하여 분노한 이방 나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반역의]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미면서 수군거리는가?

즉 분노하여 반역의 깃발을 든 이방 민족들이 헛된 반역을 도모하려고 응성거리며 모여들 때의 “소음”(騷音)이라는 맥락 속에 “הגה”가 들어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הגה는 무아정적(無我靜寂)의 묵상(默想)행위로서는 결코 간주할 수 없다. 특히, 시편 1편 2절 하반절의 הגה를 “묵상하다”로 번역하여

[그는] 그의 율법을 / 주 / 야로 / 묵상하는도다 (4박자)

라고 할 경우, 우리는 쉽게 구약의 율법 종교로부터 묵상(默想)의 경건과 종교 행위를 추론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 종교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즉 그들은 율법을 명상하지 않고, 소리내어 읽는다(낭송하거나 중얼거린다).

(b) 반면에, הגה를 שיח(syh)와의 관련에서 본다면, 시편 77편 12[13]절이 הגה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והגיתי בכל־פעלך // ובעלילותיך אשיח

또 주의 모든 / 일을 / 묵상하며(הגה)

주의 행사 / 를 / 깊이 생각하리이다(שיח) (3+3) 「개역」

또 주의 모든 / 일을 /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הגה)

주의 행사 / 를 /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שיח) (3+3) 「개역 개정」

「개역」의 “묵상하며”는 얼핏 보기에는 “깊이 생각하리이다”와 매우 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7편이 말하는 [내가] “깊이 생각하리이다”(אשיח)가 정적주의(靜寂主義)를 대변한다고 보고, 따라서, 그 평행어인 הגה를 “묵상하다”로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역(誤譯)으로 보인다.

שיח의 의미는, 그러나, 정적주의적 명상 / 묵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깊이 생각하다”는 의미와 함께, “말하다, 탄식하다, 노래하다”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서, 다후드(M. Dahood)는 여기서 “speak”를 뜻하는 후기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의미가 נָחַח에 더 잘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시편 77편 11-12[12-13]절의 모든 동사들(zkr, hgh, syh)은 모두 “소리로 들을 수 있는 행위”(audible activity)를 묘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נָחַח가 사용되고 있는 시편 시들의 문맥은 그 의미가 모두 “소리로 들을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즉 55편 2[3]절(탄식하다), 55편 17[18]절(탄식하다), 69편 12[13]절(비난하다), 77편 3[4]절(불안하다), 105편 2절(말할찌어다 * 「개역」과 그 개정판은 모두 “묵상할지어다”라는 각주를 붙이고 있다)은 모두 “낮은 소리로 말하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시편 77편 12[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두 동사, 즉 נָגַח과 נָחַח의 동의 평행 관계는 모두 소리로 들을 수 있는 행위(audible activity)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נָגַח은 “묵상하다”보다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그리고 נָחַח는 “깊이 생각하리이다”보다는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로 옮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상 (a), (b)의 검증을 통하여, 우리는 시편 1편 2절에 나타나는 נָגַח의 의미는 “묵상하다”의 의미보다는, 그 의성법적(onomatopoetic) 기능에 따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즉 시편이 지닌 “낭송”의 제의적 기능은 — 비록 시편 1편이 비제의적(非祭儀的) 지혜시로서 양식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 이스라엘적 전승에서는 “묵상”의 경건 행위보다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낭송”의 경건 행위가 이스라엘적 신앙 전통에 더 부합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1편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력과 그리고 율법 묵상과 시편 묵상의 경건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중요한 신앙 전통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 양 믿어온 기독교 교회 현실 때문에, 번역본의 텍스트에는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을 그대로 두기로 하고 각주(脚註)에서 그 히브리말 원의(原義)를 밝히기로 하였던 것이다.

(3) נָגַח를 번역하는 일과 함께, 우리는 시편 1편 3절^b의 לָבַב(nāvel)이 갖고 있는 통상적 의미(“시든다”, “마른다”, “떨어진다”; wither, fall, fade ...)의 배후에는 “불멸”(不滅; immortality)에 관한 가나안 종교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신학적 결실도 또한 거두기도 하였다.

히브리어 nāvel 동사는 “가라앉다, 침몰하다, 내려가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그 앓수르적 동계 언어는 “떨망시키다”, 아랍어의 경우는 “죽는다”는 의미까지 함유하고 있다. 특히, 가나안 종교원경(Ugarit 원경)의 한 단편 자료는(cf. C. Virolleaud, 1963) “호론(Horon) 신(神)이 그가 심은 한 나무, 즉 ‘죽음의 나무’(š mt)라는 타마리스크(tamarisk) 나무를 심어 둔 그 광야로 추방을 당한 것”에 관해서 보도해 주고 있다. 따라서 “lō yivbôl” (로·입볼 ; never wither, never die)의 관념은 “불멸” 또는 영생 관념을 지니고 있는 한 나무에 관한 한 상징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놀라움게도 기원전 2세기까지는 구약의 세계로부터 불멸 또는 부활 신앙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아 온 전통적인 학문적 전제에 대한 한 결정적 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특히 5절의 “심판의 자리”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관한 표현들의 가나안 신화적 영향을 고려한 불멸/부활 사상의 유입에 관한 Dahood의 논의들은 가히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시편의 「개역 개정본」은, 지나치게 경직(硬直)된 고풍(古風)스러운 언어들의 경우에서는, 그 의미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호하게 개정의 칼을 대었다. 예컨대,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읽어 오고 또 매우 익숙해 있었던 “거(居)하다”라는 표현은 그 원어가 גרר인 경우는 “머물다”라고 개정하였다(시 5:4[5] ; 15:1 등등). שׁב의 경우는 대체로 “앉다”로 옮겼으나, 그러나, 문맥을 따르는 융통성을 보였다.

“광명”은 “빛”으로, “화광”은 “불빛”으로, “백수”는 “백발”로, “변박”은 “변론”으로, “대사”는 “큰 일”로, “종적”은 “발자취”로, “연고”는 “때문”으로 “무시로”는 “항상”으로, “어미”와 “아비”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고쳤다. 이러한 예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개정의 손길이 작용하였다.

「개역」 성서의 일반적 성격과는 맞지 않게, 마치 “리듬”을 고려하지 않는 듯이, 많은 곳에서 시적(詩的) 울동(律動)을 깨뜨리는 어색한 “준 말”들이 나타난다(필자는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다). 예컨대, “당케하다” → “당하게 하다”, “낭패케 하다” → “낭패하게 하다”, “정죄치” → “정죄하지”, “지체치” → “지체하지”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줄인 말” 사용은 (매우 많음), 주목할 만하게도, 시(詩)의 울동까지 깨뜨리고 있었다.

「개역」 :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러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시 35:4)

개정 :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러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시 35:4)

3. 나오는 말

완벽한 개정은 불가능하였다. 특히, 시편의 경우, 그 평행법적 특성과 운율 형식은 가능한 한 깨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번역의 개선(改善)에 최선을 다하였다. 무엇보다, 가급적, 언어의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였다(이 부분에서는 히브리어 Concordance의 도움이 컸다).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 역할은 할 수 없었다. 아마도, 통일성의 결여가 여전히 일어나는 곳은 후일, 재개정 또는 교정 재판이 나올 때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완벽하게 바로잡아질 것을 기대한다.

아마도, 독자들 중에는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역설적 표현일지는 몰라도, 독자들에게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개정의 외적 흔적이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우리 감수자들의 의도였고 그것이 또한 다름 아닌 매우 큰 수고를 동반한 대견스러운 개정 감수의 자세였다고 자임(自任)해 본다.